

결혼과 여성의 지위 - 아내가 화낼 때 ㉔

‘저주는’ 싸움인가, ‘지는’ 싸움인가

기센 아내 ‘잡기’ 위해 한달간 가출했던 남편의 이야기

요즘 젊은 남자들은 능력있는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뒷받침만 잘 해주면 여자도 얼마든지 사회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평등의식을 공유하며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젊은 남자들은 여자들의 성공에 그다지 인색하지 않다. 생각같아서는 자신의 아내를 어느 여자보다도 성공한 여자로 뒷받침해 주고 싶은 용의도 있는 것이 요즘 젊은 남자들의 신선한 사랑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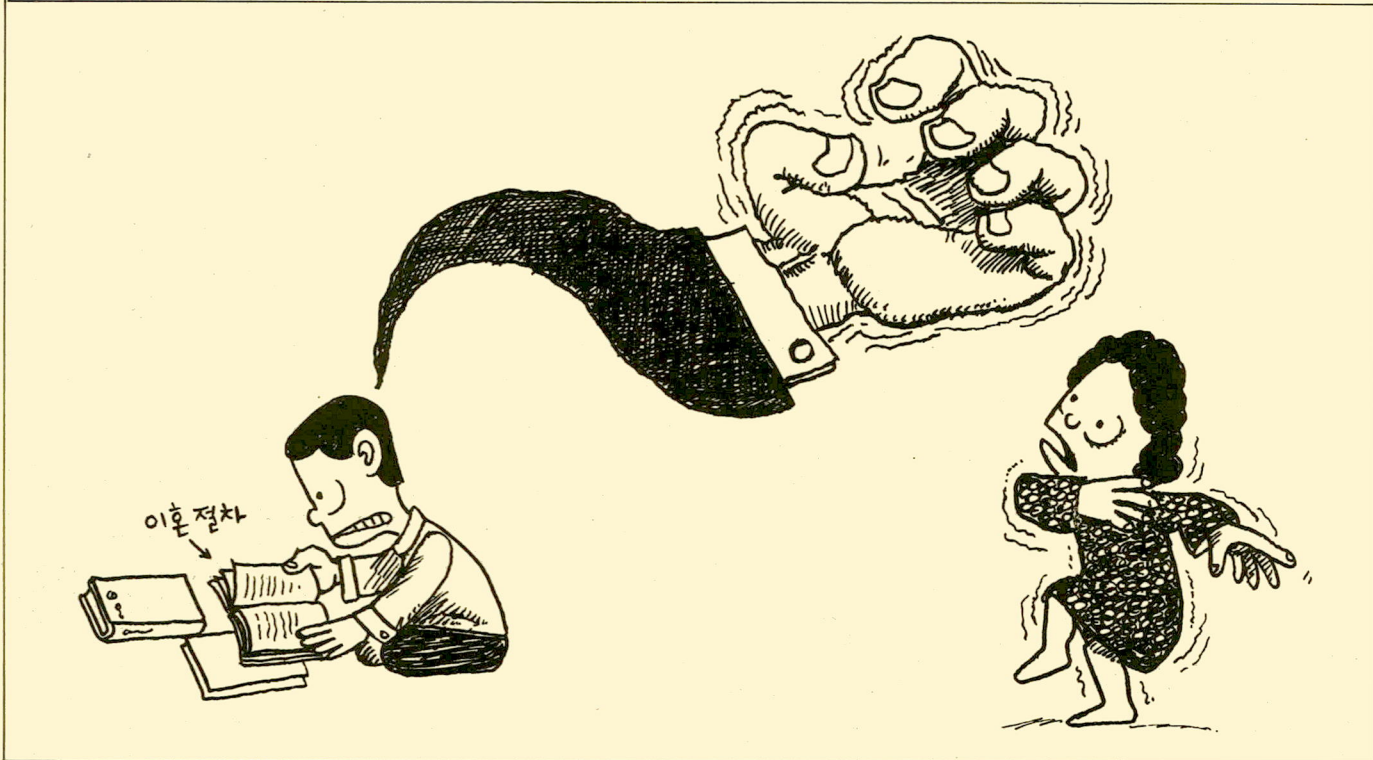
그러나 여자들이 결혼 이후에 닥쳐올 굴레를 예상하지 못한 채 아내의 신분을 얻고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그 이후에 가서야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갈등에 빠지듯이 남들도 결혼한 이후에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절망하는 수가 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를 호강시켜 줄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아내를 사회인으로 키워내기에는 턱도 없이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자각은 젊은 남성들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

내성적인 남편과 독설가인 아내

회사원 박정환(30. 노원구 하계동) 씨도 결혼 이후에 이런 좌절감에 익숙해진 남자다. 그의 동갑내기 아내는 ‘기가센’ 편에 속하는 능력있는 여자였다. 활발한 성격과 남성적이고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아내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자신의 결점을 잘 보완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결혼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그 활발한 기질과 능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결혼 이후부터 백일이 갓 지난 아이가 있는 지금까지 박정환 씨의 결혼생활은 자신의 계산에서 한참 어긋난 채로 진행되고 있다. 일류대학 행정학과를 나왔지만 동료들처럼 대기업 사원으로 안정되게 살아가기 보다는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박 씨는 사업을 벌이고 의미있는 일을 찾아다니느라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가 키워주고 싶었던 능력있는 그의 아내는 가난한 집의 안사람으로서 고달픈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아이까지 생겨 활동폭을 제한받게 되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보이게 됐다.

그의 아내는 ‘뒤끝이 없는’ 대신 직설적인 독설가로 하고픈 말을 참지 않는다. 남편 친구들이 있는 자리거나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라도 감정을 감추지 않고 하고픈 말을 한다.



이번만은 지면 안된다는 생각도 있고 이걸 정말 용서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집을 나와 버렸어요. 1달 동안 이친구 저 친구 집을 찾아다니며 동가식 서가숙 했습니다.

다른 때는 집을 나와도 몇시간 있다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꼭 ‘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버티기로 한 겁니다. 그땐 정말 심각했습니다. 나가 있는 동안 이혼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랬으니까요. 꼭 이혼을 원해서라기 보다는 ‘나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다’는 걸 시위하려고 그랬다는 편이 옳겠죠.

화가 날 때면 남편이 듣기에 인신공격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말이라도 서슴지 않는다.

인내는 기본, 우선 피하고 본다

남편 박정환 씨는 아내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이런 순간이 오리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가 꺾어나야 하는 현실은 그의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벌어지곤 한다. 이럴 때 박 씨는 가슴 속에 상처를 받는다. 박 씨는 항상 자기를 만나서 더 잘되기는 커녕 보통 여자들만도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는 아내에게 항상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아내의 공격이 가해질 때면 대꾸를 하지 않고 그래도 아내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몇시간 동안 무작정 집을 나서서 ‘현장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참는 건 기본이구요. 주로 피하지요.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싸우는 문제가 주로 경제문제, 그와 관련된 시집문제가 대부분이죠. 항상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뭐라고 그러면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고 말을 막 해대요. 같이 대꾸해 보았자 말만 더 험해지니까 주로 제가 자리를 피하는 거죠.”

박정환 씨는 “내가 다른 친구들처럼 대기업에 취직해서 남들이 벌어들여 주는 만큼의 월급봉투를 가져다 주었으면 부부싸움은 훨씬 줄었을 것”임을 확신한

다. 이 집의 부부싸움의 단골주제는 주로 경제문제. 자신이 자기를 버리고 월급봉투 배달원이 되는 보통 남자의 길을 걷지 않고 나름대로 자아실현의 길을 선택한 결과에서 파생되는 갈등 이므로 대부분 부부싸움의 원인제공자는 박 씨 자신인 셈이다.

원력으로도 지고 싶지 않을 때

이 부부의 싸움은 예상외로 치열해질 때가 있다. 그가 아내와 맞서서 싸울 때는 ‘자존심이 심히 상했을 때’이다. 박정환 씨로서도 어려운 사람들, 일관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나 가족들 앞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박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

“남편으로서의 위신을 건드렸다고 느껴질 때는 같이 싸우고 욕할 때도 있어요. 아내도 기가 세서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치고 받고 싸운 적도 있어요. 아내가 달려들면 내가 그걸 막으려고 밀쳐내고, 그 밀친 게 폭력이라고 더 포악해지고... 한번은 너무 화가 났어요. ‘욕’하는 심정에 때릴 수는 없고 방문을 주먹으로 팡 치니까 문이 부서진 일도 있어요. 나도 지고 싶지 않다, 원력으로도 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나도 피하지 않는 겁니다.”

동갑내기 부부 아내의 꿈을 이뤄주지 못하는 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진 남편, 그러나

남자로서의 위신은 지켜주기를 바라는 남편. 남편보다 훨씬 기가 세고 독설가인 아내, 결혼 이후 예술의 길을 걷지 못하는 아내. 이런 상황들은 이들 부부의 결혼생활에서 싸움을 끊이지 않게 했다.

아내에게 지고 싶지 않은 박정환 씨는 한달간 가출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 아내의 기를 꺾고 싶어서다. 원인은 역시 경제문제로 인한 시집문제에서 찾아진다. 아내 몰래 형제들과 모아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는데 그걸 아내가 알게 된 것.

한달간의 가출 ‘아내 꺾기’가 목적

“우리집 사정이 좀 특수해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몸이 아프시고, 장남은 생활이 넉넉치 못하니까 4남매가 조금씩 모아서 어머니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아내한테 말하면 우리도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막내면서도 무리를 해야 하는 사정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몰래 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시작을 했지요. 가장 약점이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아주 비겁하게 건드리고 심한 욕설까지 하는 겁니다. 이번만은 지면 안된다는 생각도 있고 이번 정말 용서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집을 나와 버렸어요. 1달 동안 이 친구 저 친구 집을 찾아다니며 동가식 서가숙 했습니다. 다른 때는 집을 나와

도 몇시간 있다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꼭 ‘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버티기로 한 겁니다. 그땐 정말 심각했습니다. 나가 있는 동안 이혼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랬으니까요. 꼭 이혼을 원해서라기 보다는 ‘나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다’는 걸 시위하려고 그랬다는 편이 옳겠죠. 아내도 사과하지 않고 나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다가 한달만에 집안에 결혼식이 있을 때 장모님 중재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가 쫓겨나던 시대는 지났다

기센 아내를 ‘잡기’ 위해 시도된 박 씨의 가출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싸움은 계속됐으니까.

박 씨 주변에는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오는 친구들이 더러 있다며 ‘여자가 쫓겨나던

시대’는 지난 모양”이라고 말한다. 박 씨는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너그러운 편이지만 여러차례 겪은 부부싸움 속에서 결혼과 여성들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그의 집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남편을 압도하게 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그의 분석은 이렇게 정리돼 있다.

‘아내여 미안하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자’

“곰곰히 생각해보니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내의 개인적인 성장배경에서 나온 문제로 기가 세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싸고돌아서 안되는 걸 모르고 컸다고 하니까요. 두번째는 아내가 여러 면에서 나한테 경제면에서나 능력면에서 ‘꿀릴 것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꿀릴 것 없다’는 생각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 ‘나가 나한테 해준게 뭐 있느냐?’, ‘억울하다’는 감정으로 발전하고 그 감정에 힘입어 싸움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예술을 한 사람이라서 직업상 자의식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네번째는 아내들이 할 말을 참지 않는 요즘의 사회분위기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 자리를 피해 집을 나가는 남편은 아내에게 ‘저주는 것’일까? 무시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밀려나고 있는 걸까?

세상이 여자를 편한 쪽으로 변했다고 해도 결혼생활에서 많이 참는 ‘쪽은’ 여자들이다. 남자들은 말은 안하지만 이런 아내들이 고맙고 미안하다. 하지만 계속 여자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못한 척 약한 척하며 엮으려 살아주던 아내가 일어서서 큰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남편들은 당황하고 의기소침해진다. 저주는 것이든, 무시하는 것이든, 정말 지는 것이든 화내는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김효선 기자>

여성신문과 함께 의욕적으로 일할 분을 찾습니다.

- 모집부문 : 출판부 영업직
- 자격 : 학력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경력자는 경력증명서 제출)
- 접수기간 : 1993년 7월 10일까지
- 문의 : 여성신문사 출판부 (565-0071~6)